

경실련 토론 원고_사단법인 부산청년들 사무국장 우송현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간 부산시에서 주관한 ‘시민토론 on air’를 통해 천여명의 시민들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의견으로 ‘청년이 머물고 싶은 일자리 도시’가 뽑혔습니다.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했으나 여전히 부산시장에게 바라는 점 1순위로 ‘청년 일자리’를 꼽은 상황입니다. 부산시의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 간에 온도차는 여전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단법인 부산청년들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부산에서 나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사전 공론장 : 투표결과 1 (참여자 32명)

“지역정착지원금 받고 지역에서 취업/이직하기”
vs
“빚 내서라도 서울로 이주해서 취업/이직하기”

1. 지역정착지원금 받고 지역에서 취업/이직	41% (13표)
2. 빚 내서라도 서울로 이주해서 취업/이직	19% (6표)
3. 기타	40% (13표)

지역정착금이 지급된다면 부산에 남을 것인가, 그래도 서울로 떠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청년을 인정하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지원금이 주어진다면 지역에 남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단지 잘 버티라는 의미에서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직접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도전의 기회로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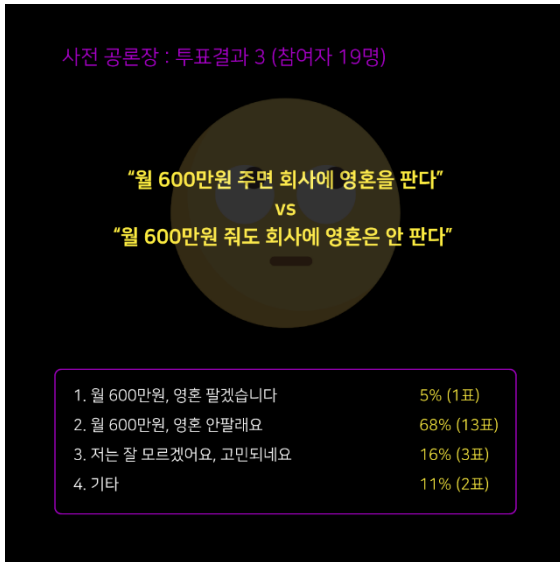
사전 공론장 : 투표결과 2 (참여자 24명)

“만약 학력이나 대학 간판으로 차별 받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여전히 'in서울'로 향할까?”

1. 그래도 'in서울' 대학으로 향할 것 같아요	33% (8표)
2. 그러면 'in서울'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67% (16표)
3. 기타	0% (0표)

“학벌주의가 사라진다면 in서울 소재의 대학으로 갈까?”라는 투표에서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in서울을 하지 않겠다고 선택했습니다. 학벌이란 곧 좋은 일자리를 매개해주는 조건이며, 좋은 일자리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보장해주는 일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지닌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지방의 대학보다 쉽게 맺어줄 수 있기에 서울의 대학으로 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사람이 모이는 만큼 문화, 인프라, 공동체가 구성됩니다.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좋은 환경을 배경삼아 존재할 확률은 부산에 비해 서울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산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해볼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게 바로 부산에서의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급이 600만원이라면 영혼까지 팔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통해 대부분이 돈보다 개인의 자아실현을 우선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돈보다 귀천이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단순히 많은 일자리보다 좋은 일자리를 지원해야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지를 논의해보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자리는 부산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의 공약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가덕도 신공항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업 플랫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빅데이터 관련 기업 500개 창업, 대기업 관련 기업을 3개 이상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 등 대규모 인프라를 활용한 일자리뿐이었습니다. 거대 자본과 대기업 그리고 대학과 지역살리기로 인해 청년들의 현실은 묻혀버리기 일쑤입니다.

최근 부산시와 쿠팡의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2,200억원 투자와 3,000명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숫자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부산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논란이 크게 일었던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면서 3,000명이라는 일자리가 과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단순히 양적 일자리로만 청년노동, 청년일자리 문제를 다루서는 안 됩니다. 경제성장, 기업유치, 대규모 인프라 도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는 지난 20년 간 반복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과 산학협력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단순히 버티라는 의미일 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최근 부산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청년들의 반발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당장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 자산형성의 기회, 경력형성의 기회, 미래준비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서울과 지역을 비교하며 박탈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에서 불평등과 격차를 느낍니다. 이는 단지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정적인 일자리란 구직의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취업과 창업에서 더 나아가 청년이 원하는 일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부산시가 되길 바랍니다.